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Broadcast Ti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for the day.

장덕을 기억하며... '애 애' 젊은 감각으로 다시 태어난다

레인보우 노트, 트리뷰트 프로젝트 발매

시티팝 듀오 레인보우 노트가 한국 가요사의 천재 여성 싱어 송라이터 고(故) 장덕의 '애 애' (사진)를 현대적 감각으로 리메이크한다.

레인보우 노트 소속사 루비레코드는 장덕의 노래를 후배 뮤지션들이 다시 부르는 '장덕 트리뷰트 프로젝트(Tribute Project)' 세 번째 곡 '애 애'가 10일 발매된다고 밝혔다.

'애 애'는 1988년 9월 발매된 장덕의 '애애-골든 앨범 vol.2' 타이틀곡으로, 그룹 김트리오의 리더 김파가 작곡하고 장덕이 작사했다. 미국의 고전 로큰롤 리듬과 드림 비트의 정서가 흐르는 밝은 트랙이다.

음악 저널리스트 김성환 씨는 "항상 자신이 만든 곡 위주로 노래했던 그녀에게 색다른 도전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원숙한 표현력으로 리듬을 타는 그녀의 보컬 능력은 이 곡에서도 빛이 난다"고 짚었다.

여성 시티 팝 듀오 레인보우 노트는 원곡의 상큼한 분위기를 살리면서 젊은 감각을 더해 자연스러운 신스-펍키 팝으로 재탄생시켰다.

레인보우 노트는 지난해 12월 '장덕 트리뷰트 프로젝트'의 첫 주자로 장덕의 '님 떠난 후'를 청춘 감성에 맞게 커버해 선보였다.

두 번째 주자로는 가수 모트가 나서 '소녀와 가로등', '점점 더 가까워져요' 두 곡의 리메이크 버전을 발표했다.

'장덕 트리뷰트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남이섬 노래박물관 앞에 그를 추모하는 노래비가 건립되는 등 최근 장덕의 음악적 유산



산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장덕은 어린 나이에 싱어송라이터로 두각을 드러낸 것은 물론 연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청춘스타'이자 엔터테이너였다. 오빠 장현과 결성한 듀엣 '현이와덕이'는 한국판 카펜터스로 불리며 주목받았고 남매가 배우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1990년 남매가 잇달아 요절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달 4일은 2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장덕의 31주기였다.

/연합뉴스

영화 '미나리' 61관왕... 워싱턴DC 비평가협회 수상

윤여정 여우조연상 21관왕 '신기록 ing'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가 2020년 미국 워싱턴DC 비평가협회에서 2개 부문을 수상하며 세계 영화상 61관왕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배우 윤여정이 받은 상만 21개에 달한다.

또 '미나리'는 미국방송영화비평가협회(BFCA)가 선정하는 '크리티컬스 초이스' 영화상에서 10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아카데미상(오스카)을 향한 레이스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배급사 판세네마에 따르면 '미나리'는 8일(현지시간) 2020 워싱턴DC 비평가협회에서 여우조연상, 아역배우상 부문

을 수상했다. 이로써 세계 영화협회 및 시상식 수상 기록은 도합 61관왕이 됐다.

여우조연상은 영화 속에서 희망을 키워가는 할머니 '순자' 역을 맡은 윤여정이 받았다. 윤여정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미국 여성 영화기자협회, 골드 리스트 시상식, 섀넌 필름 서클 어워드 등에서 21관왕을 기록했다. 윤여정은 미국배우조합상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 부문 후보로도 올라갔다.

'미나리'는 이날 크리티컬스 초이스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 각본, 촬영, 외국어 영화상 등 모두 10개 부문 후보로도 선정됐다. 윤여정은 여우조연상 후보에, 주연 스티븐 연은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0일(음 12월 29일 己丑) ☎ 010-9790-8237

子 36년생 액운이 보이니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8년생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 한다. 60년생 단순화 시켜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72년생 더 불어서 억울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84년생 과신은 손재를 부르니 물다리를 두드리고 건너라. 96년생 거주장스러운 것은 차치하고 편하게 임하라. 행운의 숫자 : 23, 81

卯 39년생 함께 할 때는 즐겁겠지만 벗어나면 공허해진다. 51년생 요건을 구비하는 데는 애로 사항도 보인다. 63년생 차분하게 임해야 후회 없는 대처를 할 수 있다. 75년생 깔끔하게 처리 될 것이니 마음 폭 놓아도 된다. 87년생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실행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리라. 99년생 자유로운 상태로 놔두는 것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21, 80

午 42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앞만 보고 뛰어도 된다. 54년생 관계의 개선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66년생 치밀한 설계 못지않게 알찬 실행도 절실히 요청된다. 78년생 출가 분한 마음으로 임했을 때 더 나은 성과가 있다. 90년생 신속하고 정확하게야만 성취할 수 있다. 02년생 도를 넘는다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1, 82

酉 33년생 누구에게도 못 말할 근심이 보인다. 45년생 상호간에 배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57년생 상대를 먼저 파악해야 완벽하게 대처 하리라. 69년생 금권의 위력 앞에서 휘청거리는 형편이다. 81년생 투명하고 정확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93년생 편이한 사정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62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